

광주 세계수영대회 외신 취재열기 후끈

광주조직위, 세계선수권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외신 기자회견
영국·이탈리아·러시아·미국·중국·일본 등 차기 개최도시 집중 질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차기 개최도시인 광주에 대한 외신의 취재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27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주경기장인 두나 아레나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 15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영국·이탈리아·러시아·미국·중국·일본 등지에서 온 취재진은 차기 개최도시인 광주에 대한 준비 상황, 경기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 광주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와 이날 첫선을 보인 공식 엠블럼, 또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에 대해서도 관심과 질의가 이어졌다.



2017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주경기장인 두나 아레나 프레스센터에서 26일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 15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조영택 사무총장의 경우 지난 22일 영국 스포츠 전문매체인 인사이더 더 게임스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국제종합경기 뉴스 전문매체인 '어라운드 더 링스', 스포츠 전문매체인 '스포츠킴', 헝가리 월간지

'트로피칼', 부다페스트대회 조직위 소식지, 국제수영연맹(FINA) TV 등 6개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홀리오 마글리오네 FINA 회장과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이 나란히 참석해

광주대회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을 당부했다.

마글리오네 회장은 "2년 뒤 열리는 제18회 광주대회는 많은 환대와 친절 속에서 헝가리 대회보다 훨씬 훌륭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 인권, 평화라는 광주정신과 수영대회를 상징하는 물결의 완벽한 조화를 기대한다"며 "부다페스트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도시브랜드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경기장과 연계한 주요 관광지와 랜드마크를 전 세계에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세계수영대회는 2019년 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31일간 208개 연맹 1만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영·다이빙·싱크로나이즈 수영·수구·하이드로워터·오픈워터 수영 등 6개 종목으로 나뉘어 남부대, 진월테니스장, 영주체육관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월테니스장, 영주체육관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차세대기대주' 임은수·김예림·유영 "후회없는 연기가 목표"

계속 자라는 키에 "성장통 있지만, 큰 문제 없어요"

차세대 기대주 삼총사 임은수(14·한강중)와 김예림(14·도당중), 유영(13·과천중)이 "후회없는 연기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

임은수와 김예림, 유영은 28~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실내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을 겸해 열리는 '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 챌린지' 대회에 나선다.

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이들은 나이 제한 탓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한국 피겨를 빛낼 차세대 주자로 꼽힌다.

임은수와 김예림은 2016~2017시즌 ISU 주니어 그랑프리 무대에 데뷔했다. 유영은 올 시즌부터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이 가능하다. 이번 선발전에서 3위 내에 들면 주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4, 5위에게는 1개 대회 출전권만 부여된다.

삼총사로 불리는 만큼 이들의 각오는 한결같다. 지난 시즌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후회없는 연기를 하는 것이다. 임은수는 27일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지난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했다. 올 시즌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올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에 꼭 출전해 지난 시즌에 했던 실수를 만회하겠다. 지난 시즌 후회된 모습을 보완해서 올 시즌에는 후회없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림은 "올 시즌이말로 연습했던 것을 보여주고 후회없는 연기를 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나가게 된다면 지난 시즌에 느꼈던 것을 보충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유영은 "올 시즌 목표는 지난 시즌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프로그램도 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점프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나가면 해외 선수들과 좋은 경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 시즌 본격적으로 주니어 무대에 나서는 유영은 언니들과는 감회가 남다르다. 유영은 "살짝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도 많이 된다. 기다려 온 주니어 데뷔다 열심히 하겠다"며 "경험을 쌓아 더 큰 국제대회에서 잘하고 싶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지난 시즌 세계주니어선수권 대회에서 4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던 임은수는 더 큰 꿈을 꿀 만도 하지만, 순위나 점수에 신경쓰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임은수는 "점수는 제가 판단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심판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점수"라며 "부족했던 것들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고,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창 성장하는 나이 아이들은 지난 시즌 막판인 3월과 비교해 키가 몰라보게 자랐다.

지난 시즌 키 155cm 정도였던 임은수는 현재 160cm까지 키가 자랐다. 임은수와 키가 비슷했던 김예림은 현재 키가 161cm 정도다. 지난 시즌 키가 149cm였던 유영은 156cm까지 컸다.

피겨 선수들의 경우 키가 갑자기 자라면 점프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키가 자라면서 발목이나 발꿈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성장통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

김예림은 "부상을 치료하던 시기에 키가 커서 훈련할 때 옛날과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무릎이 아파 고생했다"며 "하지만 통증은 차차 없어졌다. 옛날 느낌을 어느정도 찾았다고 설명했다."

유영도 "크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성장통이 있었다. 키가 크니 무릎이나 발꿈치 조금씩 아픈지는 했다"고 고백했다. 임은수는 "키가 자라면서 통증은 느낀 적은 없었다. 점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신경쓰지 않고 하던대로 운동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선발전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 3위 내에 들어야 2개 대회에 출전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임은수는 "제 연기에 집중해 쇼트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에서 클린 연기를 하고 싶다. 좋은 결과를 얻어 원하는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예림은 "올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높은 순위를 바라보다가 노력한 만큼 하면 만족할 것 같다"고 전했다. 유영도 "순위에 신경쓰지 않겠다. 노력한 만큼 보이고 싶다. 클린 연기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연기를 나서는 유영은 "마지막 순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국제대회에 나가면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마지막 순서에 잘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초등학교 시절 실전에서 쿼드러플 살코를 시도하기도 했던 유영은 여전히 트리플 악셀과 쿼드러플 살코를 연마 중이다.

유영은 "지금도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컨디션에 따라 성공률이 다르지만 성공률이 높으면 프로그램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26일 터키 삼순에서 열린 2017 삼순 데플림픽 사격 여자 25m 권총에서 금메달을 딴 전지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고생' 사격 전지원, 생애 첫 데플림픽서 2관왕 등극

사격의 전지원(18)이 생애 첫 데플림픽(청각장애인 올림픽)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지원은 26일(한국시간) 터키 삼순에서 열린 2017 삼순 데플림픽 9일차 여자 25m 권총 결선에서 합계 26점으로 올라 미소첸코(러시아)를 2점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 22일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딴 전지원은 이날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전지원은 "처음 출전하는 데플림픽이라 메달을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선수가 되어 세계가 인정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드민턴은 남자 단식에서 출전한 서명수(19·새마을금고)와 신현우(39), 신경덕(29·김천시청)은 나란히 16강에 진출했다. 여자 단식에서는 이소영(21·김천시청)과 정선화(33)가 16강에 올랐다.

혼합복식은 3개 조가 전부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남녀 개인전에 나선 탁구는 전원이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고, 수영 평영 200m에 나선 채예지(16)도 어렵게 결선 진출이 좌절됐다.

뉴스스

한국남배구, 亞선수권서 10일 승리...조 1위 8강행

한국 남자 배구대표팀이 한일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26일 밤 인도네시아 그레시에서 열린 2017 아시아 남자배구 선수권대회 조별예선 C조 3차전 일본의 경기에서 3-2(25-22 21-25 17-25 25-18 15-9)로 승리했다.

베트남과 스리랑카를 완파한 한국은 '난적' 일본마저 제압해 C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27일 인도네시아와 8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뉴스스



K리그 전반기 최장 출장선수 강원 이근호...2122분간 누벼

올 시즌 팀 치른 23경기 중 21경기 풀타임 소화

올 시즌 전반기 가장 오랜 시간 K리그 클래식 무대를 누빈 선수는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강원)였다.

26일 강원에 따르면 올 시즌 팀이 치른 23경기(K리그)에 모두 출전한 선수는 이근호를 비롯해 주세종(서울), 오르사(울산), 김신욱(전북), 심동윤(포항), 김민혁(광주), 송승민(광주), 맨디(제주) 등 8명에 불과하다.

이근호는 76분을 뺀 2122분 간 그라운드에서 머물며 전반기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했다.

이근호는 23경기 중 21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리그 개막전을 시작으로 13경기 연속 풀타임을 뒀 뒤 14번째 경기였던 제주 유나이티드전에서 후반 35분 교체로 나갔다. 이후 6경기에서 다시 90분을 채운 이근호는 21번째 경기인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후반 15분 교체로 등장해 연속 출전 기록을 이어 갔다.

순도도 높다. 개막전부터 득점포가 불을 뿜었다. 5골 3도움을 기록한 이근호는 라운드 베스트11 5차례, 라운드 MVP 2차례 수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강원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2년 4개월 만에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이근호는 구단을 통해 "감독님이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신다. 훈련 시간을 선수 컨디션에 맞춰 조절해 주신다. 대화를 통해 가장 좋은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이런 배려에 책임감을 더 느끼고 한 발 더 뛰게 된다"며 "기록적인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달리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한국 펜싱, 2017 세계선수권대회 종합 3위 달성



2017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5위에 오른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

한국 펜싱이 2017 세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했다. 신아람 최인정(이상 계몽시청),

강영미(광주 서구청), 송세라(부산광역시청)가 출전한 여자 에페 대표팀은 27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

뉴스스